

SK, CEO세미나 개최지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SK그룹은 10월 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려던 <2008 최고경영자(CEO)세미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가 확산하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08년 CEO세미나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여는 방향으로 바꿨으며, 구체적 국내 개최 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CEO세미나를 통해 현재의 국제 금융위기에 대응한 그룹 및 관계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 등 그룹 관계사 CEO 및 핵심 임원들이 참석한다.

SK그룹은 애초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글로벌기업을 다수 보유한 강소국(強小國)으로 성장한 네덜란드와 유럽연합(EU)의 다른 글로벌기업을 벤치마케팅하기 위해 CEO세미나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한편, SK그룹은 매년 10월에 다음해 그룹 운영의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그룹 CEO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와 토론 형식의 CEO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0/13>